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여수시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위탁 운영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맞춤형
체력측정을 통해 건강증진에 기여—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학근)이 장애인들의 체력증진과 복지향상을 담당하는 여수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를 위탁 운영한다.

이번에 운영하는 장애인국민체육센터는 90억원(국민체육기금 50, 시비 40)을 들여 여수시 오림동 102번지 일원에 지상3층, 연면적 4,249㎡ 규모로 지어졌으며, 주요시설은 다목적체육관, 목욕탕, 체력측정실, 체력단련실 등이다.

1층에 마련된 장애인 전용 목욕탕은 대중탕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중증장애인이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 목욕탕도 함께 갖추었다.

배구, 탁구, 골볼, 배드민턴, 보치아 등 여러 종목의 경기를 즐길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은 관람석, 샤워장 등과 함께 2~3층에 위치했다.

또한, 2층에는 운동처방과 상담, 체력측정 등을



위한 체력측정실, 체력단련실 등이, 3층에는 다목적실과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등이 배치됐다.

센터에서는 각종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전문 운동처방사가 맞춤형 체력 측정 후 상담을 통해 장애 유형 및 체력 수준을 고려한 운동처방으로 체력향상을 도모한다.

센터 관계자는 “장애인 이용자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생활 체육 활성화와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장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여수시 장애인국민체육센터의 정식 개관은 6월 중순쯤 예정하고 있다.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여수 대표하는 ‘여수거북선 축제’ 적극 지원

—시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학근)은 여수를 대표하는 문화 축제로 총무공 이순신장군을 기리는 ‘여수거북선 축제’와 ‘어린이날 기념행사’, ‘재외외국인 다문화가족 한마당’ 등 5월 중 시주관행사를 적극 지원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청결한 이미지를 심어줬다.

여수거북선축제는 전국 유일의 호국문화체험축제로 축제기간 34만 여명의 인파가 몰려 인산인해를 이루어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였으나, 첫날은 통제영 길놀이 후미에 환경사원이 함께 이동하면서,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새벽 조기 청소로 깨끗한 축제



현장을 만들어 시민과 관광객에게 호평을 받았다.

또한 매년 여름철 관광성수기에는 특별청소대책을 마련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관광도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최적의 관광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운영사례·노하우 습득 위한 벤치마킹 줄이어

—공단 간 협력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갈 것—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학근)에 전국의 각 기관들이 지방공기업 설립 및 청소행정 등을 배우기 위해 잇따라 방문하였다.

공단은 민간업체에서 대행하던 청소업무를 인수하여 첫해에 24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환경미화원의 복지증진을 통한 사기진작 등 청소업무를 차질없는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어, 운영사례와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해 벤치마킹이 줄을 잇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방문한 원주시청, 순천시청, 광산구청은 공단의 설립과 환경사원 근무형태, 급여체계, 환경사원 근무시간 및 수거인원 등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그 외 대행업체 직원들의 공단



채용 시 선발절차 등에 대하여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 운영의 전반적인 운영방법 및 개선사항을 공유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며, “앞으로도 공단 간 협력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환경사업소, 2018 합동소방훈련 실시

—신속한 화재진압 대응체계 구축—

여수시도시관리공단 환경사업소(소장 이경태)는 5월 9일 환경사업소 일원에서 여수소방서 화학구조대와 합동으로 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 현장 대응력 향상을 위한 ‘2018년도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반입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가정 하에 화재 발생 초기진화 체계 확립과 인명구조, 사고수습까지의 전 과정을 실전과 같이 실시하여 신속한 화재진압 대응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특히, 이번 합동소방훈련에서는 화재로 인한 약품(유해화학물질)누출과 지하 밀폐공간 내 질식재해 상황을 추가로 가정해 자위소방대의 약품 확산 방재 작업 및 질식자 응급구조활동을 소방서와 연계하여 체계적 대응능력 배양을 중점으로 실시했다.

환경사업소장은 “직장 자위소방대의 초기 화재 진압 및 피난 대피 능력은 인명, 재산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하다” 면서 “이번 합동소방훈련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화재 발생 시 위기 대응능력을 확보하는 등 직원들의 안전의식 제고에 큰 도움이 되었다” 고 전했다.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지진 대피훈련 실시...

—지진 발생시 올바른 대처방법 숙지—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학근)은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간 중인 지난 5월 16일 14시부터 20분간 지진 발생 시 대응능력향상을 위해 제407차 민방위의 날과 연계하여 전국단위 지진대피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경주, 포항 지역의 연이은 지진 발생으로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로 볼 수 없어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주요훈련으로는 지진 상황 발령과 동시에 머리를 보호하고 책상이나 탁자 아래로 대피한 후 흔들림이 멈췄을 때 신속히 계단을 통한 야외대피 장소로 이동하고, 지정된 대피장소에서는 지진 행동요령 등 재난발생시 대처방법을 교육하였다.

훈련 담당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실내에서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전기와 가스를 차단 후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하여 계단을 통해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 를 강조했다.